

## 조선업 1조 지원, 목포·영암은 빠졌다

정부, 고용위기지역 군산·거제·통영 등 6곳 지정 추정 투입키로  
전남만 제외 강력 반발 ... “추가 지정에 이낙연 총리가 나서야”

정부가 최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빠져있는 목포와 영암지역이 제외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추가 지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남도가 고용위기 지역 신청 접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나 오랜 기간 전남지사 공백과 최근 경제부지사의 사퇴 등으로 인한 전남도의 행정 누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전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 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놓인 목포와 영암지역이 제외되면서 고용유지·생활안정·경영안정자금 등의 수혜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8323명에서 2017년 12월 5594명으로 고용 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 대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 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 전남도와 목포시·영암군은 신청시기를 놓쳤다.

전남도는 뒤늦게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포시와 영암군의 통합 건의문을 9일께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영암 등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군산뿐만 아니라 영암의 대불공단과 거제, 통영 등 근로자가 많이 줄은 지역이 많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평화당 소속의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영암과 목포의 대불공단은 2016년 대비 2017년 고용이 48.8% 감소해 심각한 고용 질벽 상태”라며 “전남도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것 같으니 신청하는 대로 최대한 긍정적이고 단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포함했던 6개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 반영이 이번엔 문재인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아름다운 선거”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광주시내 지역에 선거일을 알리는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음악회

### 용재 오닐의 ‘양상블 디토’ 공연



리처드 용재 오닐

### 6월 18일...빈·베를린 필 7인 ‘필하모닉스’ 12월 공연

광주일보는 창사 66주년을 맞아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잇따라 개최합니다.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양상블 디토’ 공연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로 구성된 ‘필하모닉스’(PHILHARMONIX·비엔나 베를린 뮤직 클럽) 공연입니다.

먼저 오는 6월 18일 관객들을 찾아가는 ‘양상블 디토-Dynamic DITTO’는 디토가 ‘공감과 젊음’을 모토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2018 디토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2015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의 바이올리니스트 유 치엔 쟁, 2014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아시아 최초의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1위 수상자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클라리넷의 김한이 참여해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2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악장 노아 벤디스 등 7명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필하모닉스’ 공연이 클래식 팬들을 만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빈필 단원인 비올라의 티로 페히너, 클라리넷의 다니엘 오펜 잠머 등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록그룹 퀸의 ‘Bohemian Rhapsody’ 등 다양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16면> 광주일보 독자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2018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후 7시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제작 : (주)크레디아 프로젝트
- 티켓 : R석 88,000원, S석 66,000원, A석 33,000원
- 예매 : 티켓마루
- 문의 : 062-220-0541

광주일보

## 검찰 “다스는 MB것”

이명박 전 대통령 111억 뇌물·349억 횡령 혐의 기소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9쪽 분량(별지 포함)의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

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전두환 부역 논란’ 확산 ▶3면

KIA, 오늘 한승혁 선발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18 PINK RUN GWANGJU

A MORE BEAUTIFUL WORLD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20by20

2018 PINK RUN GWANGJU

상무시민공원  
2018년 5월 27일 09시30분 출발

종 목 | 10km / 3km

참 가 비 | 1만원(전액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인원 | 3,000명

기 념 품 |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 핑크런 사무국(1688 9744)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pinkcampaign.com

접수시작 | 3월26일 ~ 선착순 접수